

# 교사가 주인공 되는 수업혁신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교원 154개팀 수업사례 시연

교사가 주인공이 되는 수업혁신 축제가 31일 막이 오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31일~11월 1일 이틀간 창조나래 시청각실 및 전주우림중학교에서 '2025 전북 수업나눔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수업애 빠지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수업혁신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습 수업사례 나눔으로, 교사의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올해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AI·

디지털 활용 △생태·지역 연계 △학력 신장 △교사 성장 등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11월 1일 전주우림중에서 진행되는 ‘수업나눔의 날’에는 도내 교원 154팀이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실천한 다양한 혁신 수업사례를 직접 시연한다.

또한 수석교사 컨설팅, 사제동행 공개수업, 교사 연구회 및 학생 동아리 부스 운영 등을 통해 교사와 학생, 지역이 함께 배우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성장·발전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

인다.

한편 개막식은 31일 오후 3시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열리며, 교사 선언과 축하공연, 교사 성장 이야기, 교사정책 대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교사들이 서로의 수업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교사 성장의 축제’이자,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북교육 혁신이 교실에서부터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교 선수단 해단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국기능경기대회 학교 선수단 해단식

용접 · 요리 · 자동차 차체수리 등 15개 직종, 33명 입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교 선수단 해단식'을 열고 입상 학생과 지도교사에게 메달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해단식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직업계고 현장의 숙련기술 교육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9월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도내 13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79명이 참가해 금 3·은 3·동 4·우수 5·장려 18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입상 분야는 △용접 △요리 △

프로토타입모델링 △자동차차체수리 △전기제어 △게임개발 등 15개 직종으로 총 3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주공업고 하상표 교사가 전기제어 분야에서의 지도성파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모범지도자상)을 받았다.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전북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국 무대에서 보여준 실력은 우리 기술교육의 경쟁력을 보여준 성과”라며 “앞으로도 숙련기술 교육 강화와 전공심화동아리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기술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연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직원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건전한 직업관 함양에 나섰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640여 명을 대상으로 30~31일, 11월 7일 총 3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오디오룸에서 '2025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노사관계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는 노사관계를 이해하고, 직원 간의 행복을 부르는 대화법 강의를 통해 보다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관 또는 학교에 맞는 사례 중심의 단계교섭 이해하기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행복을 부르는 대화법 및 회복탄력성 교육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 등이다. /장은성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지역 출신

명사 초청 제3차 진로특강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30일, 전북유니텍고등학교에서 '지역 출신 명사 초청 진로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위대한상상(요기요) 권호준 인재문화본부장이 명사로 참여해 학생들에게 진로 설계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인재의 자세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행사는 장수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장수스님 만나다' 진로특강의 세 번째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지역의 선배를 통해 꿈과 진로에 대한 동기를 얻고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권호준 본부장은 위대한상상(요기요)에서 인재문화와 조직문화를 이끌고 있는 전문가로, 자신의 학창 시절과 성장 과정,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도전과 성장을 강조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삶을 위한 작은 위로’

전주학부모합창단, 내일 정기연주회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11월 1일 오후 4시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전주학부모합창단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인생이라는 노래 - 삶을 위한 작은 위로'를 주제로, 음악을 통해 인생의 전세대에 걸친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세대와 세대를 잇는 따뜻한 울림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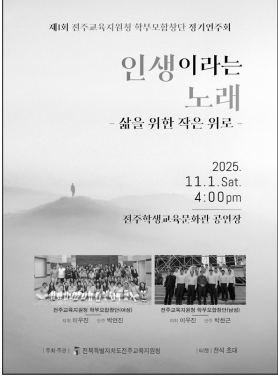
연주회는 '유년시절', '청춘', '우리, 지금', '인생'의 네 개의 테마로 구성되었으며, 각 무대는 인생의 다양한 순간을 음악으로 표현해 교육가족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여성합창단(회장 여경아, 단원 53명)과 남성합창단(회장 도내현, 단원 27명)이 함께 무대에 올라 '카치니 아베마리아', '노을', '바람의 노래', '백만송이 장미', 'Coro di Schiavi Ebrei', 'Gaudemus(기뻐하리다)' 등 클래식과 대중이 어우러진 곡들을 풍성한 하모니로 들려준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이우진, 반주자 박찬근·박연진이 함께하며 전문성과 예술성을 더했다.

공연에는 학부모, 학생, 시민 등 약 500여 명이 함께해 세대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감과 소통의 무대를 나눌 예정이다.

채선영 교육장은 “음악은 세대와 문화를 넘어 마음을 잇는 언어이



며, 합창 속에는 존중과 협력, 나눔의 가치가 담겨 있다”며 “전주학부모합창단이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주학부모합창단은 2007년 '전주은고을어머니합창단'으로 창단해 2023년 현재의 명칭으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꾸준한 연습과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으며, 2023년 창단된 남성합창단 또한 음악을 통한 나눔과 희망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정기연주회가 학부모와 학생, 시민이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감의 자리가 되어 전주시민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길 기대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아프리카학 지평 확장

오늘부터 이틀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서

‘2025 KAAS 인터내셔널 콘퍼런스’ 개최

전북대학교에서 한·일 공동 아프리카학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한국아프리카학회(KAAS, 회장 조화립)는 31일과 11월 1일 양일 간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5 KAAS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아시아적 관점에서 본 아프리카학의 발전'을 주제로 일본아프리카학회(JAAS)와의 특별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아프리카학 석학 22명이 발표자로 참여해 아시아 내 아프리카학 연구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공동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특히, 일본 아프리카학자들이 주도하는 'TICAD(도쿄 아프리카 개발 국제회의, 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frican Development) 세션'과 한국 연구진이 참여하는 'Korean · African Summit(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세션' 등 특별 세션도 마련됐다.

또한 일반 시민과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세션(Citizen Session)'을 통해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교류, 청년 협력 등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아프리카학회(KAAS)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NRF), 일본학술진흥회(JSPS), 한·아프리카재단(The Korea-Africa Foundation), 순창발효관광재단이 공동 후원한다.

조화립 학회장은 “이번 한·일 공동 학술대회는 아시아의 시각에서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새로운 학문적 패러다임”이라며 “국내의 연구자와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아프리카학 연구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의료 AI’ 가능성 · 한계 논의

적응형 AI연구실, 감염병 진단 · 치료 AI 활용 세미나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AI 기술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11월 3일 전북대 인문사회관 208호에서 열렸다.

30일 전북대에 따르면 조재혁 교수팀이 이끄는 적응형AI 연구실에서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전문성과 소신 있는 분석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은 감염병 권위자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가 주제 발표자로 나서 관심을 끈다.

최근 인공지능(AD)의 분야별 특화 활용이 전 산업과 학문에서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도메인 특화 AI 활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조재혁 교수팀(소프트웨어공학과)이 한림대 이재갑 교수 등 국내 권위자들과 함께 감염병 대응 AI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이번 세미나는 조재혁 교수가 좌장을 맡아 AI 모델의 신뢰성, 데이터 편향, 윤리적 검증 문제 등 핵심 쟁점을 짚으며 토론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여기에 이재갑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감염병의 진단과 치료에서 AI의 활용'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 밖에도 전북대 간호학과 장형은 교수,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고주연 박사, AI관련 기업인 아이브랩 이준욱 이사가 참여해 의료와 AI의 융합 연구와 공공보건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한안나 교수, 식품영양 과학회 신진연구자상 수상받아

전북대학교 한안나 교수(생활대 식품영양학과)가 식품학 및 영양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신진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상식은 지난 29일 백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KFN) 국제 심포지엄 및 연례 학술대회'에서 열렸다.

KFN는 매년 연구력이 뛰어난 국내 신진과학자를 선정·시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한 교수는 학문적 성과와 연구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한 교수는 한국 전통 발효장류(K-Jang)의 분자 대사 기반 기능성 연구와 장내 미생물 및 대사체 분석을 통한 건강 효과 규명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더불어, 국가 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노년층 영양 및 만성질환 역학 연구까지 폭넓게 수행하고 있다.

한안나 교수는 “이번 수상은 식품영양학과 분자대사영양학 연구실 학생들과 동료 연구자들의 노력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 발효식품의 과학적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에너지 기술공유대학

학술세미나 온 · 오프라인 진행

전주대학교는 30일 군산 새만금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에너지 기술공유대학(ETU) 학술세미나 및 창업특강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호남권 에너지기술공유대학(ETU),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RE100에너지기술트윈얼라이언스, 전북테크노파크가 공동 주최했으며,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약 140명의 호남권 산학연관 전문가 및 대학원생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오전 세션에서는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쥬정세 이기태 대표의 초청 특강이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전북테크노파크 김영권 에너지산업육성단장의 '전북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 육성정책'과, 한국전기연구원 김태진 박사의 '새만금 국가종합실증단지' 강연이 이어졌다.

이어, 목포해양대(이광운)·순천대(김성일)의 전류충정 오차 보상, 전북대(임전용 외 4)의 빠른 반도체 공정을 위한 가변 캐패시터 회로 등 3건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Poster 발표는 한국전기연구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국내 국책연구기관과 (쥬비나래 등 지역기업, 전주대·전북대·군산대·원광대 등 도내 대학과 전남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 메사추세츠 대학 등 해외대학 등에서 27개의 포스터 발표가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지원청, 소년 재판

이해 · 학폭 법적 분쟁 연수

학교폭력 예방과 위기청소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31일 전주대학교 예술관(J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소년재판(위기청소년) 이해 및 학교폭력 법적 분쟁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장·교감 3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날 연수는 법적 분쟁 상황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연수 내용은 △학교장 통고제와 소년 재판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위기청소년 예방 및 개입 전략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의 심리적 지원과 자살 예방 초기 대응 방안 등이다.

/장은성 기자